



화순군이 감도리에 조성한 나무은행이 불법 쓰레기 투기로 엉망이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집회금지 공고 경로당 도시락 대체

코로나19 예방 대책

담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로당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기관 단체의 행사 금지를 공고했다.

27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시적 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이어 이날 범위를 지역 내 모든 기관단체로 확장했다.

금지 기한은 3월1일까지이며, 집회·제례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는 경로당 363곳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와 마을이장, 자원봉사단체에서 도시락과 밀반찬, 빵, 우유 등을 직접 배달하고 있다.

고서면 적십자봉사회에서는 결식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44가구에 빵과 우유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고, 중앙봉사회에서는 독거노인 20가구에 반찬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예방법도 설명했다.

/담양=노영한 기자 nyc@kwangju.co.kr

“우량목 보존” 말만 앞섰나... 화순군 ‘나무은행’ 관리 엉망

화순읍 감도리에 조성한 나무은행이 불법 쓰레기 투기로 엉망이다. 27일 화순군에 따르면 화순읍 감도리 879번지 1880㎡(570평)에 숲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우량목을 베어내지 않고 이식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무은행을 조성·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나무은행 부지에 깨진 건축용 타일과 토목공사용 PE관, 찢어진 현수막, 버려진 공사안내판, 폐목재, 나뭇가지와 뿌리 등 임목 폐기물이 가득하다.

감도리 조성 숲가꾸기 부지 1880㎡ 건축용 타일·폐목재·쓰레기 등 방치
군 관련부서 합동단속반 단속도 전무

최근에 폐기물을 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흔적도 보인다. 화순군은 지난 11일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산림·농장·환경

부서가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 A씨는 “폐기물 방치·불법 소각과 관련해 주민들은 단도리하면서 화순군이 조성·관리하는 나무은행은 방치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나무은행 주변 폐기물은 즉시 수거하고 앞으로 불법 소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장성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조기 착수 ‘청신호’

국토부·철도시설공단 협약
국비 지원 사업 추진 확정
주민 편의·지역경제 활성화

장성읍내 호남선철도를 통과하는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이 조기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장성을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을 국비 지원 사업으로 결정했다.

이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장성군은 다음달 중 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철도 통과 구간 국비 지원율·사업추진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장성군은 호남선철도가 장성읍내를 가로질러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장성역 지하차도’를 개설했다.

지하차도 개설로 교통 흐름이 원활해져 장성을 영천리 일대에 780세대 규모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1·2차 공공임대주택과 300세대 규모의 민간아파트가 건립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장성 서부권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서부를 잇는 추가적인 교통시설이 절실하다. 특히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장성지역의 교통량을 소화하고 정밀안전진



지난 2006년 개설된 장성역 지하차도.

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옛 청운지하차도의 보강이 시급해 새로운 지하차도 개설이 요구됐다.

청운지하차도가 개설되면 장성을 서부지구는 복합주거단지 개발의 여건을 갖추게 된다. 또 장성문화예술회관, 장성군립중앙도서관, 흥길동체육관, 수영장을 비롯해 연말 준공 예정인 장성공설운동장 등 공공시설이 밀집된 기산리 일대와 장성을

중심지를 연결, 주민 삶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그동안 호남선철도는 장성의 도시확장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왔다. 청운지하차도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성 드림빌사과 테마공원 행안부 마을기업 선정



장성군 삼서면 드림빌사과테마공원을 방문객들이 사과농장에서 사과 수확체험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시설비 등 5000만원 지원

장성 드림빌사과 테마공원마을이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장성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2020년 1차 신규 마을기업에 ‘드림빌사과테마공원마을’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드림빌사과 테마공원마을은 지난 2012년 농어촌 뉴타운으로 조성된 삼서면 장성 드림빌에 정착한 귀농귀촌인 마을이다. 유행지구 농촌테마공원의 사과단지, 잔디광장, 다목적센터,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장성 미래농업대학 신입생

2개 학과 40명씩 모집

장성군은 지역 미래농업의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한 제13기 장성미래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성미래농업대학은 칼라포도와 채소 2개 학과를 운영하며, 다음달 13일까지 교육생을 과정보로 40명씩 모집한다.

장성미래농업대학은 분야별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선도 농가를 초빙해 현장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칼라포도학과’는 장성군의 특화사업인 칼라푸드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신상품 포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올해 처음 개설됐다.

지구난화에 대응하는 신소득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상품 포도 재배를 위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칼라포도 재배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한다.

‘채소학과’는 뿌리채소, 잎줄기 채소, 박과 채소 위주의 재배기술 제공으로 장성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됐다. 장성군 푸드플랜 육성사업과 연계해 기획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고 소량다품종 신선채소의 생산시스템 및 안정적 판로 구축 방안을 교육할 계획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